



생명과 환경의 수수께끼 조홍섭 지음 고즈윈 펴냄 | 1만원

공해 사건에서 생명공학까지 환경문제의 변화상과 대책 일화 중심으로 흥미롭게 엮은 환경 전문가의 자연 예찬론

인류여 자연과 더불어 살자꾸나

'자연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저 바깥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의 집 자체다.'

<과학동아>와 <한겨레>신문에서 20년동안 환경전문기자로 활동해 온 조홍섭 국민대 사회학과 겸임교수의 자연 예찬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가 최근에 펴낸 <생명과 환경의 수수께끼>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들을 담아 놓은 환경개론서이다. 그렇다고 이 책은 책장 몇 번 넘기면 금방 하품이 나오는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다.

런던 스모그와 미니마타병 같은 역사적 공해 사건을 비롯해 최근의 환경오염과 유전자 조작 등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의 달라진 양상과 대책 방향을 일화 중심으로 소개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1952년 12월 5일 영국 런던 주민들은 전날부터 끼기 시작한 안개가 더욱 짙어지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 보았다. 문제는 이 안개가 시골에 끼는 하얀 안개가 아니라라는 점이다.

최악의 갈색을 띤데다 매캐하고 자극성 있는 냄새가 났다. 연기와 안개가 결합된 스모그였다.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스모그가 계속되자 병원 응급실은 환자들로 넘쳐났고, 급기야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도시 곳곳에 임시 시신 안치소가 설치됐다.

5일동안 런던에서 발생한 사망자만

도 4,703명에 이른다. 이런 대형 참사에 놀란 영국 정부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56년 대기보전법이 제정돼 공장가정은 검은 연기를 내지 않는 연료로 바꾸어 쓰도록 했다.

런던 스모그에서 나타났듯이 대기오염 피해는 건강한 사람이 오염물질을 마시고 갑자기 풀쩍 쓰러지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은이는 경고한다.

애초 건강이 좋지 않던 호흡기질환자나 노인, 어린이 등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오염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한다.

케냐의 차보 국립공원은 전 세계에서 큰 규모로 손꼽히는 곳이다. 1960년대 말 케냐에 최악의 가뭄이 덮쳤다. 굶주린 코끼리들이 차보 국립공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코끼리를 3천마리쯤 도살하자자는 의견과 자연이 해결해 줄 테니 그냥 내버려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자연의 치유력을 믿는 후자가 논쟁에서 이겼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코끼리 9천마리가 굶어죽었고, 죽기 전 이들은 공원의 상당 부분을 어수선했던 달나라 풍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현재 코끼리는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코끼리를 속아내야 한다는 관리 방안과 자연의 해결책에 맡기자는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지은이는 이 일화를 통해 자연에 대한 현명한 개입이 어디까지 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흔히 환경문제의 해결을 보전과 개발의 '조화' 라는 말로 설명한다. 하지만 그 귀결은 늘 또 다른 개발이었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대표적인 개발로 지은이는 시화호 간척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꼽는다. 이 두 사업은 엄청난 돈과 노력을 낭비하고 자연을 망친 환경파괴사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은이는 새만금 사업이야말로 새만금 연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지속 가능한 삶을 꾸려온 사람들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고 꼬이붙인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물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투발루 공화국(항공사진).



끝모르게 펼쳐진 사회주의 조개껍질 무덤. 일부 수질이 좋아지면서 호수바닥에 묻혀 있던 것이 떠올라 쌓였다.

이런 어수선했던 사회에서도 삶은 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위해 지은이는 우선 공해의 가장 주범인 휘발유 자동차를 무공해연료차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한다. 그 좋은 예로 1997년 하이브리드차(휘발유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차)를 상용화한 도요타 자동차를 예로 든다. 또한 땅을 살리는 농법만이 살길이라는 주장을 펴는 지은이는 경남 하동군 옥종면 농사꾼 이영문씨의 친환경농법인 '태평농법'을 소개했다.

이 씨의 농법이란 생태계를 살려 토양 미생물과 지렁이, 무당벌레 같은 동물과 여러 가지 식물들이 제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렇듯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자연을 보는 성숙한 시각과 생명 환경에 대한 속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김주원 기자 jkim@buddhapia.com



유럽문명의 아버지 고선지 평전 지매선 지음 청아출판사 펴냄 | 1만5천원

고선지는 우리 역사에 풍문처럼 존재하던 인물이다. 물론, 그는 실존인물이지만, 한국사 사료 안에 담겨있는 그의 족적은 희미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고선지에 대한 평가는 서구학계에서 더 활발하고 의미 깊게 진행되는 듯 보인다. 영국의 고고학자 오셀 스타인은 고선지를 로마를 점령한 카르타고의 한니발,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견줄만한 인물로 꼽았고, 중앙아시아 역사의학의 최고 권위자인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크리스토퍼 교수는 고선지를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언급했다고 한다.

유추해보자면, 고선지는 한국의 역사에서보다는 서구 문명의 초창기에 강렬한 족적을 남겼다. 그와 비견되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성격이 가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고선지는 우리 역사에서 흔치않은 정복자의 전형에 닿아 있는 것이다. 기병 1만 명을 이끌고 연운보(連雲堡, 지금의 파키스탄 동남쪽인 사르하드)를 공격할 때 눈으로 뒤덮인 세계의 지붕 파미르고원을 돌파하면서 용맹을 떨치는 모습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지만, 지은이가 고선지의 행적 중 가장 중요하게 파악하는 대목은 바로 유명한 '탈라스 전투'이다. 지은이는 이 전쟁을 '동서 문명의 대회전'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인류 문명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파악한다. 그전 무엇보다도

제지술 서양에 알린 실크로드 인물

그 전투에서 포로가 된 고선지를 통해 제지술이 서양으로 전파됐다는 사실이 기인한다. 고선지가 실크로드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동서문명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될 수 있는 건 그 때문이다.

'탈라스 전투 이후 알려지기 시작한 제지술은 실크로드를 따라 사마르칸트와 바그다드를 거쳐 다마스쿠스까지 전파됐다. 8세기 중엽부터 바그다드에서 동서의 문헌들이 대량으로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중국의 제지술을 비롯해 인쇄술이 전래되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지술과 인쇄술의 놀라운 결합은 서양에서 구텐베르크(Gutenberg)를 통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포도 압착기를 개조해 만든 인쇄기로 최초의 인쇄물을 찍어냈다. ... (중략) ... 결과적으로 고선지의 탈라스 전투 패배는 서양 문명의 발전을 넘어 인류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체로 사료에 기반한 충실한 역사서이지만, 적어도 '평전'이라는 이름을 달았다면, 고선지라는 인물의 입체적인 모습들을 보다 다이나믹하게 묘사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지은이의 의도가 고선지에 관한 왜곡된 편견을 바로 잡는 데 있는 건 그 자체로 인정하더라도, 일반 독자 입장에서 좀더 극적인 전개로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때문에 꼼꼼하게 제시된 자료들이 자칫 교과서적인 나열에 그칠 위험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고선지를 복원하겠다는 지은이의 끈기와 노력이 빛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호소력 짙은 구성과 문장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김정현(서울대 역사학과 강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후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 1. 불교란?
- 2. 부처란?
-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 5. 사찰경내 예법
- 6. 합장과 빈배
- 7. 고두레
- 8. 예불문
- 9. 삼보
- 10. 삼귀의
- 11. 삼법인
- 12. 삼인
- 13. 삼학
- 14. 신도오계
- 15. 사성제
- 16. 사설법
- 17. 십이인연
- 18. 육바라밀
- 19. 팔정도
- 20. 보살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압도 크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특별보급가: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저카드지

과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용성크스님, 윤희크스님 (정가16,000원) 2권을 시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